

유로 2016 크로아티아 스페인 격파 '파란'

에이스 모드리치 공백에도 2:1 역전승 2승1무 승점7로 D조 1위 16강 진출

크로아티아가 에이스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의 부상 공백에도 '무적 함대' 스페인을 침몰시켰다. 크로아티아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유로2016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이반 페리시치(인테르밀란)의 결승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2승1무(승점 7)가 된 크로아티아는 스페인(2승1패 승점6)을 제치고 D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팀의 핵심 멤버인 모드리치가 빠진 상황에서도 승전고를 울려 기쁨이 배가됐다.

왼쪽 측면을 누빈 페리시치가 선제골을 도운데 이어 결승골까지 뽑아내며 경기의 주연으로 등극했다.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를 대신해 선발로 나선 니콜라 칼리나치(피오렌티나)도 1골1도움으로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크로아티아는 오는 28일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팀을 상대로 16강 경기를 치른다. 사상 첫 3연패를 노리는 스페인은 베스 트 전력을 가동하고자 일격을 허용해 자존심을 구겼다.

주장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가 1-1로 맞선 후반 26분 페널티킥을 놓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 일정도 어려워졌다. 오는 28일 이탈리아와 8강 티켓을 다툰다.

선제골은 스페인의 몫이었다. 전반 7분 세스크 파브레가스(첼시)가 골키퍼와 결합 상황에서 내준 공을 알바로 모리타(유벤투스)가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파브레가에게 넣어준 대니얼 실바(맨체스터 시티)의 침투패스가 일품이었다.

기선을 내준 크로아티아도 7분 뒤 동점골 찬스를 맞았다. 니콜라 칼리나치(피오렌티나)가 끈질긴 압박으로 상대 골키퍼

의 실책을 유도했고, 반 라키티치(바르셀로나)가 흘러나온 공을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포물선을 그린 슈팅은 골대를 때리는 데 그쳤다.

가슴을 쓸어내린 스페인은 실바를 앞세워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전반 44분에는 모리타가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지만 트래핑 실수로 찬스를 날렸다.

기회를 엿보던 크로아티아가 스페인에 일격을 가했다. 이반 페리시치(인테르밀란) 왼쪽 측면을 흔든 뒤 크로스를 배달했고, 쇠도하던 칼리나치가 감각적으로 오른쪽을 가져다대 골망을 흔들었다.

1-1로 접어든 후반 초반에는 크로아티아가 흐름을 잡고 스페인을 압박했다. 후반 12분에는 다리오 스트라(사흐타르 도네츠크)가 끈질긴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으나 골키퍼 데비드 데 헤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방으로 찬스가 무산됐다.

스페인인 후반 26분 실바가 페널티킥을 얻어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의 슈팅은 크로아티아 골키퍼 다니엘 수바시치(AS모나코)의 선방에 걸렸다.

고비를 넘긴 크로아티아가 오히려 골을 뽑아내며 스페인을 궁지로 몰았다. 후반 42분 스페인 왼쪽 측면을 파고든 페리시치가 좁은 각도에서도 낮고 빠른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다.

스페인인 만회를 위해 총공세를 폈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한편, 앞서 열린 C조 경기에서는 '전차 군단' 독일이 마리오 고메스(베식타스)의 결승골을 앞세워 북아일랜드에 1-0으로 승리했다. 2승1무(승점 7)를 기록해 C조 1위로 16강행을 결정지었다. 2위 폴란드(2승1무 승점 7)와 승점이 같지만, 골



크로아티아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유로2016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이반 페리시치(인테르밀란)의 결승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득실(독일 +3, 폴란드 +2)에서 앞섰다. 사상 처음으로 유로 본선에 진출한 북아일랜드는 1승2패(승점 3)로 C조 3위에 그쳤다. 다른 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16강 진출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폴란드는 아킴 브야치코프스키(피오렌티나)의 선제골로 우크라이나를 1-0으로 꺾고 C조 2위 자리를 굳혔다. 폴란드는 사상 처음으로 대회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오는 25일 스위스와 8강 문턱에서 만난다.

/김민근기자



우석대, 태권도진흥재단과 교류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와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석대 김응권 총장, 한경식 사무처장, 이우규 산학협력단장 등 우석대의 주요 인사들과 태권도진흥재단의 김성태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김병용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석대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날 협력을 계기로 태권도원의 학술적 교육 및 연구 지원,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실습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국내외 태권도인의 중심인 태권도원을 이끌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실질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내년에 있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석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하계강화훈련 전문지도사 간담회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진행될 하계강화훈련에 앞서 전문지도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체육회 소속 팀별 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하계강화훈련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소년체전에서 어린 후배들이 선전을 하여 전북체육의 위상이 올라갔다.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선수 폭력 예방 및 각종 비리근절을 위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각종 지원에 따른 정산 역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코파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미국 4-0 꺾고 결승행

아르헨티나가 2016 코파아메리카 우승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뒀다. 아르헨티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미국을 4-0으로 대파했다. 코파아메리카 최다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단 1승만 더 거두면 통산 열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선발로 출전해 1골2도움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3매치 통산 55호골로 아르헨티나 대표팀 사상 최다골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종전 기록은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은퇴)의 54골이다. 아르헨티나가 이대로 정상에 오른다면 메시는 2005년 국가대표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7일 콜롬비아와 칠레의 준결승 경기 승자와 정상을 다툰다. 개최국 미국은 사상 첫 우승을 노렸으나, 슈팅 하나 빠지지 못하고 아르헨티나에 무릎을 꿇었다. 오는 28일 3·4위전에 나선다.

/김민근기자

WKBL, 혈통위조 첼시 징계 다음달 5일 결정

신선우 총재 "충분한 시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 할 것"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혈통 위조로 농구계를 떠돌았던 첼시 리(27)와 부친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5일 결정하기로 했다. WKBL과 6개 구단 이사회들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약 2시간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첼시 리와 하나은행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오는 7월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첼시 리와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와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선우 WKBL 총재는 "첼시 리 건은 사안이 매우 무겁고, 예민한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첼시 리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보고하고, 해당 구단인 하나은행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구단·에이전트·연맹 등에 대한 (징계나 책임)부문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첼시 리는 기소종지 상태로 범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연맹은 다음달 5일 전에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근거로 징계할 방침이다. 첼시 리가 받은 개인상 6개와 하나은행의 준우승 성적 박탈 등의 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차기 시즌 외국인선수를 몰래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하나은행의 박종현

감독은 첼시 리와 에이전트를 직접 만나 소명 기회를 줄 생각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조성남 하나은행 단장은 사파와 함께 어떤 징계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시즌 해외동포선수 자격으로 WKBL에서 뛰던 첼시 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 자격을 얻기 위해 특별귀화를 신청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본인 및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법무부는 첼시 리가 제출한 서류의 일부가 위조된 점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한 점 등을 근거로 '불행이 단정하지 않다'며 귀화 불허를 결정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